

상시 생태관광 프로그램_여름(7월~8월)

유형 | 오전형

프로그램명: 아름다운 숲으로 떠나는 지리산 역사여행



천은사 탐방

프로그램 내용

- 활동장소: 지리산생태탐방원, 천은사
- 운영기간: 여름(7~8월)
- 소요시간: 2시간
- 참가대상: 제한 없음
- 참가인원: 제한 없음

프로그램 소개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선조들의 삶의 철학과 미의식을 이해하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낀다.

운영일정

오리엔테이션(지리산생태탐방원) → 천년고찰 천은사 탐방(천은사) → 감성치유! 숲으로 떠나는 오감여행!(천은사) → 해산

세부일정표

	시 간	대 상	주요일정	대 체 프 로 그 램
오전 프로그램	10:00~10:10	공통	○ 오리엔테이션	해당 없음
	10:10~11:00	공통	○ 천년고찰 천은사 탐방	
	11:00~12:00	공통	○ 감성치유! 숲으로 떠나는 오감여행!	

아름다운 숲으로 떠나는 지리산 역사여행

활동장소	지리산탐방원
운영기간	4월~6월
소요시간	2시간
참가대상	제한 없음
참가인원	제한 없음

활동목표

- 자연을 살리는 착한 여행 '생태관광'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생태관광의 실천 계기를 마련한다.
- 역사를 간직한 배경을 돌아보며 생태계 중요성과 자연보전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선조들의 삶의 철학과 미의식을 이해하고 역사문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준비물

- 영상자료, 해설자료, 체험재료 등

유의사항

- 야외 활동 시 참여자들이 해설사가 안내하는 동선으로 이동하도록 인솔
- 야외 활동시 구급낭을 휴대하고 프로그램 시작 전 참가자들에게 해충 기피제 도포

단계	내용	시간
도입 (마음 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리엔테이션<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공원 및 지리산생태탐방원 소개, 운영진 소개-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할 수칙 공유)	10분
전개 (탐방 및 힐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년고찰 천은사 탐방<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엄사 건립관련 설화와 선조들의 건축 양식 알아보기- 천은사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선조들의 정신세계 들여다보기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성치유! 숲으로 떠나는 오감여행!<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감을 활용해 스트레스 해소하기- 천은사 치유의 숲길 자연해설	5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자간 소감 나누기• 해설사 결론 정리	10분

세부내용
(시나리오)

오리엔테이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산생태탐방원의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우리나라 제 1호 국립공원이자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리산탐방원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프로그램의 전체 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중략)

저희 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이 가진 우수한 생태, 문화, 역사를 탐방객들이 시간적 여유를 두고 머무르면서 보고 느끼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지어진 체류형 생태관광 시설입니다. 저희 지리산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 탐방원 중에서 제 1호 북한산생태탐방원에 이어 두 번째로 지어진 탐방원으로써 2015년도에 개원했습니다. 현재 우리 탐방원 이외에도 소백산, 설악산, 가야산, 한려해상 등 전국 각지의 국립공원에 총 8개의 생태탐방원이 있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국립공원의 생태관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탐방중 이용 불편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년고찰 천은사 탐방

지금 여러분이 계신 천은사도 국립공원 지역 안에 있으며 화엄사의 말사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쌍계사와 더불어 지리산 3대 사찰 중 하나로 그 아름다움이 어느 사찰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온 많은 탐방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름다움을 이야기 할 때 설악산이나 북한산 등을 예로 드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에게 위협적이지 않는 지리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설악산과 같은 산을 20대의 아름다움에 비유한다면, 지리산은 어머니와 같은 푸근함이 있는 중년의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가치를 주관적 잣대로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죠? 제 고향이 설악산 근처인 것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어릴 때는 설악산의 아름다움이 최고라고 생각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더라구요. 빼어난 아름다움도 좋지만 웅장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이곳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사찰을 방문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찰 내에서는 개인행동과 큰 소리는 자제해주시고, 문화자원은 있는 그대로 눈으로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찰에 들어가서는 풀 한포기도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지켜주실 수 있겠죠? 저도 사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소리 나는 기계를 끄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작더라도 이해하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세속의 어수선한 마음(많은 고민)은 이곳에 놔두고 함께 들어가 볼까요?

부도전

일반적으로 부처님을 상징하는 사리나 불상들은 사찰의 중심이 되는 곳에 위치하고 부도는 사찰 주변에 석비와 함께 만듭니다. 이곳 천은사의 금강송들 사이로 보이는 ‘승탑전’은 대부분 조선후기의 승탑이 대부분입니다.

일주문

여러분이 현재 보고 계시는 이곳은 사찰의 시작을 알리는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이란 사방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은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한 줄로 되어 있는 기둥 위에 지붕을 얹은 건축물입니다.

수홍루

이 아름다운 교각을 수홍루라고 합니다. 드리울 ‘수’, 무지개 ‘홍’, 다락(리) ‘루’자가 합쳐져 무지개가 드리운 망루라는 뜻으로 속세로부터 벗어나는 다리로도 불립니다. 여름이면 소나기가 내린 뒤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이 계곡 위로 걸치곤 하니, ‘수홍루’라는 이름이 정말 허투루 붙은 이름은 아닌 듯합니다.

감로천

달‘감’, 이슬‘로’, 샘‘천’자로 이름 붙여진 감로천입니다. 감로사를 대표하는 곳으로 물맛이 좋았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시원한 물맛을 보며 좀 쉬어 갑시다.

사천왕문

계단을 오르실 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왜 계단을 3군데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하나로 만들면 편하고 보기도 깔끔할 텐데요.(탐방객의 생각을 공유) 네~ 계단의 가운데는 이 사찰의 최고 높으신 분과 부처님이 다니시는 길로 비워두며 양 옆으로 보행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궁궐이나 사찰에서 3도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제루

여러분이 계단에 올라서서 보시는 이곳은 보제루라는 건물인데요. 어느 사찰이든 대웅전을 들어가기 전의 위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집회장소로 사용되는 건물로 일반적으로 보제루 아래를 통해 들어가는 방식이지만, 전라도 지역에서는 건물의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갈 수 있도록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보제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보제루의 석축을 보세요. 돌이 울퉁불퉁하죠? 유홍준 교수는 돌로 만들어진 그랭이를 만든 석공에게 ‘돌을 판 영웅적인 참을성에 찬사를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운고각

여기는 화려하게 단청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운고각입니다. 운고각에는 사물이 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종, 북 등) 네~ 잘 보셨습니다. 북처럼 생긴 것은 법고라고 하는데 네발로 걸어 다니는 짐승을 제도(중생을 고해해서 극락으로 이끌어

주는 일)하는 것으로 복은 어떤 가족을 사용할까요? 소가족을 사용하는데 한쪽은 암소의 가족을 다른 쪽은 수소의 가족으로 소리의 음양을 맞추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극락보전

극락보전은 천은사의 주불전으로 아미타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며 신도들이 설법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건물로 사찰 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극락보전 안에는 그림이 있는데 후불탱화라고 합니다. 후불탱화에는 인물마다의 그림에 이름이 적혀 있으며 큰 법회나 의식을 거행할 때 걸어 놓는 탱화인 괘불도 함께 불상 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리수나무

사찰에 가면 흔한 나무인데요, 혹시 부처님이 어떤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는지 아시는 분계신가요? 네 보리수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흔히 말하는 보리수나무입니다. 3대 성수(聖樹)로는 부처님이 탄생한 무수, 깨달음 얻을 때 보리수, 열반의 나무 사라쌍수로 시기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불교식 장례 때 제단에 지화(紙花)를 장식하는 것도 부처 입적 때의 이 사라쌍수 꽃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명부전

이곳은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지장보살을 모신 곳으로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먼저 가서 염라대왕의 죄를 비추는 거울(업경대)앞에 서서 죄를 고한다고 합니다.

업경대에 죄가 더 이상 비춰지지 않으면 심문이 끝나고 죄를 적은 종이를 저울에 달아 죄의 무거운 정도를 판가름 한다고 합니다. 이전 과정을 지켜보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이분은 죄인을 변호하여 죄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현재의 변호사 정도이겠죠? 내부에는 10명의 왕이 있는데 십왕이 시왕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시왕전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응진당, 팔상전

응진당은 석가모니 제자들을 모신 곳이며, 팔상전은 석가모니의 생애를 여덟 장면의 탱화나 존상으로 모신 곳으로 그 배경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주위로 석가모니부처가 탄생에서부터 열반까지를 여덟 장면으로 나누어 그림으로 그려놓았으며, 인간의 삶과도 같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서 부처님의 삶과 앞으로의 삶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음전

관음전은 관세음보살을 모신 곳으로 관세음보살은 대승불교의 수많은 불·보살 가운데 중생구제를 위한 대중들에게 가장 친근한 보살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겠다는 소원을 빌며 소양(모두 쓸어 없앴)을 하였다고 합니다.

삼성전

한자로 쓰여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세분의 성인을 모신 곳입니다.

불교는 민간신앙까지 흡수하여 산신까지도 받아들였으며 이를 통해 세상 모든 것을 교화한다는 불교 교리를 엿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과 함께 칠성전, 산왕각 현판이 함께 걸려 있는데요.

칠성이란 북두칠성을 일컫는 것으로 사찰에 칠성을 모시게 된 것은 중국의 도교사상이 불교와 융합되어 나타난 현상 때문입니다.

삼성전 앞에서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천은사의 전체 전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자취가 많지 않은 이곳에서 다시 한 번 눈을 감고 사찰의 분위기를 느껴보시고 또한 오늘 둘러보셨던 것들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찰내부는 다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사찰을 빠져 나가봅시다.

감성치유! 숲으로 떠나는 오감여행!

여러분들, 대나무숲에 오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숲에 오면 상쾌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바로 식물이 내뿜는 물질 때문인데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네, 맞아요. 피톤치드, 이 피톤치드의 어원을 풀이해보면 고대 그리스어에서 식물을 뜻하는 ‘피톤’과 ‘죽이다’라는 뜻을 가진 ‘사이드’가 결합해서 생겨난 말인데요. 피톤치드란 말 그대로 식물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병원균이나 해충을 죽이기 위해 내뿜는 물질이에요. 우리 몸으로 따지면 백혈구와 같은 존재인거죠. 그런데 이 피톤치드가 모기와 같은 해충에게는 아주 독한 물질이지만 사람에게에는 건강을 돕는 아주 유익한 물질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알고 있나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편백나무가 가장 많은 피톤치드를 배출하는 나무라고 알고 있지만 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주 더운 한여름의 경우, 대나무가 편백나무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은 피톤치드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나무 숲은 일반 숲보다 산소 방출량이 거의 4배 정도나 되고 또 큰 키로 햇빛을 가려주기까지 하니까 여름철에 휴가가실 때 멀리 가실 필요 없이 근처 대나무숲에 가서도 충분히 피서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나 공부하는 학생이나 또 주부는 주부대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 이제 청정한 지리산에 오셨으니 자연을 벗 삼아 몸에 좋은 운동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피톤치드와 음이온, 산소를 많이 호흡하는 숨쉬기 운동입니다.

동작을 크게 해서 천천히 들이시고, 천천히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하늘도 한번 보시고 숲의 향기도 느끼며 다시 한 번 호흡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음속 스트레스가 조금 해결되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가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찾고 싶을 때는 이곳 지리산에 와서 숲길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새로운 세상을 만날 때는 걱정과 잡념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겠습니다.



천은사 탐방

마무리(참가자 간 소감 나누기)

아쉽게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들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들께서 즐겁다고 하시니 저도 마음이 참 흐뭇해집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저희 탐방원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소감을 짧게 한마디씩 이야기해볼까요?

네~여러분들 모두 오늘의 소감을 잘 표현하신 거 같은데요. 이곳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 좋았다는 게 여러분의 공통된 소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토대로 자연을 좀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연 보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분리수거, 일회용품 사용 자제, 친환경 제품 사용 등 작은 실천을 하나씩 실행해 나간다면, 그리고 그러한 실천이 확산되어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삶에 자리 잡는다면 언젠가는 그 효과가 눈에 뵈 정도로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